독일 대형 유통망 뚫은 우리 술… aT, K-전통주 판로 확대

독일 '전통주 워크숍'서 12종 선봬
현지 매장에 9종 정식 입점 '성과'
농식품부와 '우리술 대축제'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내 전통주 업체의 독일 현지매장 입점을 성사시키는 등 유럽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독일 소재 대기업의 유통망을 십분 활용했다. 국내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이번 주말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개최한다. 이처럼 우리 술 알리기에 대내외적으로 탄력이 붙은 모습이다.

aT는 지난달 23일 독일 니더작센주 윌첸의 대형유통매장 REWE(레베)에서 'K-발효 전통주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통주 12종을 선보였는데 9종이 현지매장에 정식으로 입점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9종은 '백경15블랙', '솔송주', '담솔' 등이다.

이 행사는 유럽 내 발효식품과 새로운 풍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전통주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현지 소비자와 주류업계 관계자에게 알리고 신규 수출 판로의 개척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독일 전역에 38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대형 식품유통기업 REWE와 협력했다.



독일 현지 소비자들이 한국 전통주를 시음하고 있다. /aT

aT 관계자는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대형유통망을 활용한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행사에서는 ▲오미로제연 ▲왕주 ▲송이주 ▲우렁이쌀청주 ▲이강주 등 한국 각 지역의 특색 및 양조 전통을 담은 전통주 12종을 선보였다. 참가자들에게 한국 전통주의 역사와 발효문화, 전통 양조방식 등을 소개했다. 또 제품별 맛과 향, 음용 방법을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우선 일반소비자 대상으로는, 전통주와 현지 식재료의 조화를 경험하는 페어링 체험을 비롯해 개인별 취향에 맞는 전통주 찾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현지 식품·주류 수입업체와 외식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업 간 거래(B2B) 워크숍에서는 전통주 12종의 제품별 특징과 수입·유통 절차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현지 유통매장 신규 입점과 레스토랑 협업 등 구체적인 사업 기회도 논의했다. 유럽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앞으로도 현지 소비자의 취향과 수요를 반영한 체험형 홍보와 유통망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T는 이달 13~15일 사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내 최대 전통주 행사인 '2026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우리술 대축제에선 전국 각지의 다양한 우리 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올해는 특히 K-푸드와의 연계 및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우리 술이 국내 소비시장을 넘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K-sool'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에는 총 142개 양조장이 참가한다. 전시관에서는 올해 개최된 '2026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영예의 수장작(18개 제품)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대통령상을 비롯해 각 부문별 대상을 받은 최고의 술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또 메인무대와 체험부스에서는 ▲우리술 역량강화 공개 컨설팅, ▲전통주 산업 소비 트렌드 및 학술연구 결과 발표 등 양조산업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엇진다. 이 밖에 우리술 경매쇼, 칵테일쇼, 한식 페어링쇼, 막걸리 빚기 체험, 나만의 술잔 만들기 등 '오감 만족 참여형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다. 우리 술 생산업체와 바이어 간 'K-sool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도 열린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경매 전 육질 미리 본다… AI 서비스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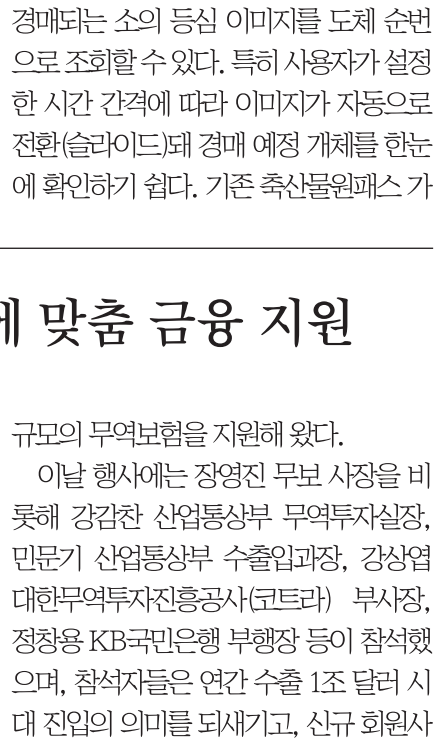
축평원, 이미지 제공 서비스 개시
중도매인, 6종 결함 정보 확인 가능

소가 경매에 부쳐지기 전 중도매인이 사진을 통해 육질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경매 소 등심 이미지 제공 서비스'를 전국 공판장 및 도매시장에서 이달 초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인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돕는다.

이 서비스는 경매 대상 소의 품질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인공지능(AI) 기반 품질평가 장비로 촬영한 등심 원본 사진이 제공된다. 이에 중도매인이 사전에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PC나 모바일로 '축산물원패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경매 소 등심 이미지 제공 서비스' 메뉴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확인하면 된다.

축산물원패스는 축산물의 도축·유통·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과 거래정보 등을 한 곳에서 관리·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경매 소 등심이미지 제공 서비스. /축평원

이 서비스에 접속하면 공판장에서 당일 경매되는 소의 등심 이미지를 도체 순번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이미지가 자동으로 전환(슬라이드)돼 경매 예정 개체를 한눈에 확인하기 쉽다. 기존 축산물원패스 가입자라면 별도 절차 없이 PC(중도매인 사무실·도축장 비치) 및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지난 9월 안동축산물공판장(경북 안동)과 농협고령축산물공판장(경북 고령)에서 실시한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축평원은 약 두 달간 실제 경매 현장에서 서비스 활용성을 점검하고, 중도매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요 기능을 개선했다. 이달 3일부터 전국 모든 공판장·도매시장 15곳에서 해당 서비스가 적용도기 시작했다. 특히 중도매인이 구매 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총 6종의 결함 정보(근출혈·수종·근염·외상·근육제거·기타)를 함께 제공한다.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별·등급 등 다양한 조건별 조회 기능도 도입했다. 축평원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서비스의 활용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나간다는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제품 순환성, 환경·비용·기술성 따져야"

KEI, 순환성 종합평가 제안

제품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는 수명과 재활용성 등 '제품의 순환성'을 개선할 때, 환경적 효과뿐만 아니라 비용과 기술적 실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9일 KEI 포커스 '제품의 순환성,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EU MEErP를 통해 본 에코디자인 평가' 보고서에서 유럽연합(EU)의 제품 환경 평가 방법을 분석하고, 국내에서도 제품의 환경영향과 경제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EU는 기존의 에너지효율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성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EU는 2024년 평가 방식을 개정해 재활용 원료 사용, 수리·업그레이드를 통한 제품 수명 연장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고도화했다. 예를 들어 제품을 오래 사용하면 신제품 생산에 따른 환경 부담은 줄어들지만, 고효율 신제품으로의 교체가 늦어질 수 있다. EU는 이러한 상충 관계와 유지관리 비용까지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품의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는 순환이용성평가, 환경성적표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나, 각 제도가 별도 관리·운영되면서 제품 설계 개선에 따른 환경적 효과나 소비자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KEI는 신규 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제도와 평가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순환이용성평가를 활용해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을 수치로 평가하고 환경영향과 비용에 관한 자료를 결합하면 제품별로 어느 수준의 개선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무보, 수출 유망기업에 맞춤 금융 지원

신규 회원사 21곳 선정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국내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수출성장 플래닛(Plan it!)'의 올해 신규 회원사로 21개사를 선발하고, 지난 6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7월 출범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수출성장 플래닛'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무보의 대표적인 단계별 맞춤형 무역금융 지원 제도다. 무보는 프로그램 도입 이래 지금까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총 64개사를 선발해 누적 2조 8000억 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장영진 무보 사장을 비롯해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 민문기 산업통상부 수출입과장, 강상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부사장, 정창용 KB국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 진입의 의미를 되새기고, 신규 회원사들에 대한 다양한 협력 지원을 약속했다.

'수출성장 플래닛'은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규모에 따라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맞춤형 밀착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연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100만 달러 이하 '이머징스타' ▲3000만 달러 이하 '라이징스타' ▲1억 달러 이하 '사이닝스타'로 세분화해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어촌뉴딜 3.0 대상지역 40곳 선정

정부가 '어촌뉴딜 3.0 사업' 대상지 40곳을 새로 선정하고 사업 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시설 조성에 집중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준공 이후 운영·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해양수산부는 9일 '2027년 어촌뉴딜 3.0 신규 사업 대상지'로 전국 4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에는 총 71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해수부는 전문가 서면·현장 평가와 종합심의를 거쳐 어촌경제도약형 5곳과 어촌회복형 35곳을 최종 선정했다.

어촌경제도약형은 지역별 관광·산업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중부발전이 '2026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 단체부문 종합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가운데 이영조 사장(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부발전

중부발전, 탄소중립 실천으로 대통령 표창

화력발전 중심 사업, 무·저탄소 전환

한국중부발전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중부발전은 지난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 주관한 '2026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에서 단체부문 종합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은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녹색경영 실천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기관에 수여하는 포상이다.

중부발전은 기존 화력발전 중심의 사업 구조를 무탄소 및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세종=한용수 기자